진성 스님, 자원봉사 국무총리 표창

"멈추지 않는 봉사로 정진해 보답"



전북에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 사진)이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진성 스님은 12월 5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진안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과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활동, 전주교도소 교정교화활동, 갑룡장학회 운영 등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진성 스님은 "더욱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멈추지 않는 나눔과 봉사로 열심히 정진해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을 이어 전주교도소 교정활동과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태고종 나누우리를 통한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대 설치 등 해외봉사활동과 진안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연탄나눔, 자비의 쌀 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활동, 탑밴드와 함께 음악봉사활동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산우회 오대영 회장 취임

임기 2년 "모범적 산행조직 만들 것"

광주불교산우회는 12월 1일 광주 수자타 2층에서 제5대 오대영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산행포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불교연합회 산하기관인 광주불교산우회는 산행과 기도를 진행하는 단체로 매월 정기 산행과 사찰기도 및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포교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취임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보응 스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주지스님 20여 명과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취임한 오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단체는 다양한 산행프로그램과 참여자의 정성, 나눔, 봉사 등이 어우러진 조직이다. 임원단이 정성스러운 산행준비를 하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행조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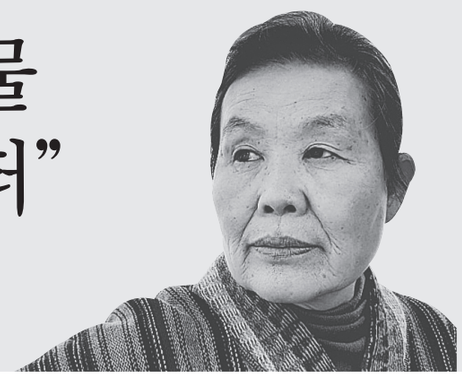
동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산행을 통해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발전하였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힘든 사회생활의 고난을 산과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행을 임하면, 내 삶은 정화되고 산행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회장은 2년 임기동안 산행과 기도, 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산행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속 숨겨진 보물 소설로 행복 전할 터"

Interview

제4회 법계문학상 수상자 강영애 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계라는 말은 제게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법계지만 오래 전 중학생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죠. 그 인연으로 제가 법계문학상을 받게 됐으니 불교 속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 소설이라는 멋진 향로에 담아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4회 법계문학상 수상자로 〈블루마운틴〉을 쓴 강영애 씨가 선정됐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블루마운틴〉 〈인더스 강의 뱃사공〉 〈산동애가〉(이상 장편소설), 〈이상한 옷 대여점, 수레바퀴〉 〈할머니를 찾아서〉(이상 장편동화) 등 본심 작품 5편을 심사한 결과 강영애 씨의 〈블루마운틴〉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블루마운틴〉은 한 사찰을 중심으로 우연히 만난 세 남녀가 서로를 통해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애증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블루마운틴〉은 도시의 보통 여인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신의 투병을 극복하고자 백운사 공양간에 들어온 뒤 새 인생을 찾는 이야기다. 백운사에서 담연선사를 비롯한 여러 스님과 불자들을 만나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각자의 블루마운틴을 찾아간다. 블루마운틴은 저자 마음속 진리의 산이다. 말로 형용할 순 없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이상향과 같다. 강영애 씨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고 블루마운틴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블루마운틴을 딱 잘라 '이것' 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네 가슴속에 언제나 오르고 싶은 마음의 보물산은 있기 마련이죠. 블루마운틴은 어쩌면 자장가와 닮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조그맣게 말해 봐도 노래처럼 울려오는 산이거든요."

강 씨는 이번 소설을 쓰면서 불교수련회에 참석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당시 중학생 아들은 수련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대표해 "어법계 일체중생 밝게 시봉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라고 원을 세웠다. 불교의 '불' 자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 씨에게 충격이었다. 그 아들은 20년이 지나 출가해 스님이 됐고, 강 씨는 또 20년이 지나 법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인물들 애증의 집착 벗어나 새 삶 살아가는 〈블루마운틴〉 "누구나 마음속 보물산 있다"

"저는 평범하게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처럼 불교를 접해왔습니다. 그게 생활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죠. 법문을 들으러 절에 가고, 불서를 읽고, 스님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 살며 배운 것을 소설이란 그릇 속에 담았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쁩니다. 이제 오래전 아들의 발원처럼 어법계 일체중생을 밝게 시봉하는 소설을 쓸 수 있길 발원합니다."

한편 강 씨는 경남 함양군 산두마을에서 1947년 태어났다. 연세대 사학과를 다니며 민영규 교수에게 불교적 감화를 받았다. 결혼 후 30년간 대전에서 예술전문서점 '솔거책방' 을 운영하다 2017년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에 편입했다. 현재 장편소설 창작동아리 '청맥회' 에서 활동 중이다.

경기도민 함께한 불교예술제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2019 행복드림 효콘서트

제15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2019 행복드림 효콘서트가 '효, 자비 그리고 평화' 라는 주제로 12월 1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 행사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불교사암연합회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 부처님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소통하는 문화축제다. 행사는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격)가 주최하고, 파주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성)가 주관했으며, 1부 법요식과 개막식, 2부 음악예술제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이광호 서예가가 '효 자비 평화' 를 무대에 펼쳐진 화면 위에 춤추듯 써내려가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법요식에서는 파주사암연합회장 혜성 스님이 7명의 체육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은 봉행사에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빠른 안정과 살처분에 동원된 종사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며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된 생명들도 왕생극락하길 축원한다. 앞으로 연합회는 문화포교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부 음악예술제는 10개 사찰합창단원 12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연합합창단의 찬불가로 문을 열었다. 이어 팝페라 가수 송우주, 퓨전국악그룹 '케이페라린' , 4명의 남성성악가로 구성된 '케이페라 너울' 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연합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아름다운 나라' 를 합창했다. 마지막 무대는 가수 홍진영이 장식했다. **윤호섭 기자**

세대 간 화합 위한 음악회

천태종 삼학사, 자비성금 · 장학금 기탁



천태종 마산 삼학사(주지 월도)는 11월 2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강당에서 '세대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음악회' 를 개최했다. 이날 삼학사는 창원 · 김해지역 연합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자비성금 2000만원을 천태종복지재단에 기탁하고 청소년 장학금 각 30만원을 총 10명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기자협회, 불교기자상 시상

12월 2일 시상식, 대상 BTN 정준호 기자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2일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더뷔페에서 '2019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열고 '포교, 부처님 법 꽃을 피우다' 를 기획연재한 BTN 불교TV 정준호 기자에게 대상인 선원빈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불교언론과 뉴미디어' 를 쓴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 노덕현 기자에게 기획해설부문상, '불교 자주성 박탈 세계유산관리법' 을 쓴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에게 취재보도부문상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정목 스님, 동국대 2천만원 기부

11월 28일 전달… "로터스관 건립에 써달라"



인터넷 방송 유나방송 대표이자 정각사 주지인 정목 스님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2000만원을 쾌척했다. 정목 스님은 11월 28일 동국대를 찾아 윤성이 총장에게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정목 스님이 지난 11월 15일 제15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특별상 상금 1000만원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신성민 기자**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